

취업 성공 스토리

로와농장

이 현 / 원예생명공학과

합격기업 전) 농업회사법인(주)BCF, 메인재배사 현)로와농장/대표

기본스펙 학점 : 4.07 / 토익 : 없음

대학생활

인턴 없음

현장실습 화순딸기영농조합, 영농조합법인옥토

공모전 없음

봉사활동 없음

아르바이트 없음

기타 2014년 하반기 농어촌희망 대학 장학생 국내 농업연수
 2015년도 후계인력장학생 농업연수 국외연수 과정(미국)
 2016년 농대생국외연수 창업경영분야 농산업창업경영 일본연수
 전남대 Smart영농창업특성화사업과정 수료
 2017.12~2020.1 농업회사법인(주)BCF 메인재배사 재직

자격증

전공 식물보호기사

일반 없음

대학생활 스토리

나는 내가 농대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게 될 줄 몰랐다.

전남 곡성, 이 조그마한 군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 목사동 시골에서 나고 자란 나는 호미질 한번, 낫질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집은 돼지농장을 하는데 딱 한 번, 돼지한테 백신을 맞추는데 보조할 사람이 없어 들어간 날 빼고는 농장에 들어가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시골에 살던 나에게 농사일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친척들이 모이던 명절날 작은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열변을 토하던 것을 듣고 감명을 받아 농대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의 꿈은 대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농업연구사였다. 호미질이나 낫질, 삽질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전공 수업을 잘 듣고 공무원 준비를 하다 보면 졸업하고 농업연구사가 되어 있을 거란 정말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여러 전공 수업을 들을수록 나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육종이 참 재미있어 보였는데 막상 관련 공부를 해보니 나에겐 지루함뿐이었고, 학점 채우기로 넣은 실습 교과목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전정하는 법, 화분 가는 법, 접목법, 식물에 관수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실습하는데 그동안 책상에 앉아 배웠던 공부를 할 때는 없던 생각이 돌았다. 실습 교과목이 몇 없어 아쉬워하던 때에 우리 학교에 'SMART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이 생겼다.

사업단 과정 중에는 실습 교과목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에 대한 수업, 경영이란 어떤 것인지 등을 배우고, 선도 농가, 농업 연구기관 현장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서 내가 관심이 생긴 것은 스마트팜이었는데. 마침 우리 학교 시설원에 교수님께서 관련 교과목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셨고, 덕분에 스마트팜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여러 작물에 대한 경영분석을 한 뒤 딸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딸기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빠르게 커졌고, 전체 채소 시장에서도 1조가 넘는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품목을 결정하는 데에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2016년 겨울과 2017년 여름 각각 겨울딸기 농가와 여름 딸기 농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전자의 경우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이 적용된 농가였고, 후자는 적용되지 않은 농가였는데, 전자에서는 겨울철 딸기 온실의 환경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많이 배웠고,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여름딸기 농가에서는 딸기 생산 목표를 어떤 것으로 잡고 생산하는지를 많이 배웠다.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배운 지식을 통해 실제 첨단 스마트팜에서는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고, 생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위해 경기 부천에 소재한 첨단 스마트팜 회사인 '농업회사법인(주)BCF'에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을 가려 했고, 회사에서는 나의 재배적 능력을 보고 현장실습생이 아닌 재배사로서 스카우트 제안을 했으며 고심 끝에 일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UP/DOWN 행잉거터를 이용한 딸기 재배를 바탕으로 체험을 제공하는 농장이었는데 딸기 재배 및 외국인 인력 관리, 온실 관리를 모두 일임하겠다는 사장님 덕분에 국산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인 마그마의 활용법과 딸기 재배 방법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또 체험 농장의 특성에 맞게 고객의 니즈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수정하며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2년간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고 고향인 전남 곡성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2020년 곡성군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었다. 9월에 심어야 하는 딸기 특성 때문에 5월에 멜론을 정식하여 재배했으나 수확을 일주일 남기고 전례 없는 폭우로 하우스가 무너져버렸다. 3개월간의 나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지만, 다시 심기일전하여 다른 하우스를 임대, 딸기를 재배하였고, 최근에는 곡성군 경영 실습 임대농장에서 멜론을 재배, 고품질, 고당도의 멜론으로 전량 직거래 완판 하였고, 현재는 추석 시즌을 겨냥한 멜론을 생산하기 위해 다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